한국수출, 신 주력품목 창출을

대외적 악재에 무너져
뾰족한 해법 없어
"내수·수출 동반 회복
산업구조 개편 시급"

수출이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1월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18.5% 감소하는 등 지난 13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이어가는 사상 초유의 장기 수출 부진이 우리를 덮쳤다.

그동안 정부와 수출 기업들은 중국의 추격, 세계 경제성장 둔화, 저유가 등으로 지금의 수출 비상사태는 예견됐는데도 지난 2011~2011년 '무역 1조 달러' 4년 연속 달성이라는 성과에 취해 대비책을 등한시 해 왔다.

우리나라 수출 10대 주력 품목은 지난 2000년 이후 15년째 거의 변화가 없다.

최근에는 내수가 위축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성장 공식도 깨졌다. 국내 시장을 테스트 베드 삼아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고,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한때 수출의존도가 70%에 육박했던 우리 경제는 수출탑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의 GDP 성장 기여율은 0.2%로 2009년 금융위기(-0.2%)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물 경제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뒤늦게 해외 경제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단기 대책을 내놓고, 주형환 장관도 수출회복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직접 기업들과 만나 "수출 애로를 해결하겠다"며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전문가들은 수출 전략에 대한 근본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물이 서서히 끓어 오를 때까지 눈치 채지 못하다 냄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냄비 속 개구리'로 전락하기 전에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해외 경제변수에 취약

최근의 수출부진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저유가, 그리고 중·일 경쟁국 환율 약세 등 대외적인 악재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다.

하지만 올해 1월 들어 수출이 폭삭 주저앉은 이유는 뭘까. 문제는 기형적인 한국의 무역의존도 탓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입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4년 99.5%로 지난 2008년 이후 90%를 상회하고 있다. 수출입의 대 GNI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대외의존도가 크다는 것으로, 해외 경제변수에 자칫 국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특히 지역별로 지난해 기준 중국 26.1%, 미국 13.2%로 쏠림이 크고, 유럽연합(EU)은 9.1%로 상대적으로 우리 제품이 열위다. 아세안은 14.2%지만 신흥국 경기 침체 위기 상황에서 걱정이 태산이다.

품목 역시 지난 15년간 큰 변화가 없다. 2000년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은 반도체·컴퓨터·자동차·석유제품·선박·무선통신기기·합성수지·철강판·의류·영상기기 순이다. 지난해 10대 품목은 여기에서 의류, 영상기기가 빠지고 평판디스플레이, 플라스틱제품 등이 추가된 데 불과하다.

사실 2009년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미국 등 선진국의 과소비와 아시아 신흥국의 수출 주도 성장이라는 '글로벌 불균형'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유로존에서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수출 주도형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수출 의존형 성장궤도에서 벗어나 내수시장을 키워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나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 들어 내수 중심 성장을 기조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으나 식어가는 내수시장에 불을 지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작년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1.5%로 2009년 4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개별소비세 인하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형 할인행사 덕분으로, 오히려 소비를 앞당겨 향후 소비절벽마저 우려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뾰족한 수가 없는 정부…수출 구조 변화 모색, 내수 성장으로 수출 뒷받침해야

하지만 당장 뾰족한 수는 없다.

최근의 수출 부진이 저유가, 중국·신흥국 경기 둔화 등 대외 악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실제로 이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차 민·관 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열렸지만 연초 업무보고에서 나온 수출부진 대책에서 크게 나아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의 키 메시지는 정부와 유관기관이 하나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협업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당장 대책을 내놓는다기보다는 연초 세운 계획들을 당초보다 상향하고 시기를 앞당기자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인식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전반적인 세계경기가 침체 기로에 섰고,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다보니까 수출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며 "환율, 저유가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활보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신(新) 주력산업 발굴을 위해 끈기있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그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이 내수를 테스트 베드 삼아 제품을 개발하고, 좋은 제품으로 인정 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의 전략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내수시장이 위축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며 "국내 기업들이 일단 국내에서 우수상품 개발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국회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돼 하루라도 빨리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유 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최근의 수출 부진은 세계 경기 하강과 환율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타개책이 별로 없다"며 "하지만 나중에 회복기로 접어들었을 때 수출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 주력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등은 단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이라며 "결국 공급과잉, 유가, 환율 등의 영향을 덜 받는 소비재 수출을 늘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출 마케팅 지원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력산업의 경쟁력 둔화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십년간 동일한 품목이 유지되고 있는 10대 수출품목에서 벗어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장품 등과 같이 유망품목을 발굴해 신 주력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영양소 풍부한 봄나물 3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에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도 좋은 봄나물들을 선보이고 있다.

직장인 88% "대체 휴일 쉰다"

1인평균 56만원 지출 예상

직장인 10명중 9명은 대체 휴일에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휴넷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625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 10명중 9명(87.8%)은 설 연휴 대체휴일에 쉰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여전히 차이가 나타났다.

'공기업' 96.1%, '대기업' 92.7%, '외국계 기업' 91.7%가 대체휴일제를 실시한다고 답한데 반해 '중소기업'은 82.7%에 그쳤다.

이번 연휴는 평균 4.4일을 쉴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 휴일을 포함해 '5일'을 쉰다는 응답이 51.0%로 가장 많았다.

이번 설 연휴에 지출할 예상 비용은 평균 5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24.5%),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16.3%),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15%), '100만원 이상'(11.7%), '10만원 미만'(1.6%) 순이었다.

반면 지출 비용은 결혼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미혼은 평균 41만원을, 기혼은 평균 58만9000원을 예상했다. 작년과 비교해 설에 지출하는 비용은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75.4%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부모님·가족 용돈'이 6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물 구입'(16%), '차례상차림'(10.6%), '교통비'(3.2%) 순으로 나타났다.

/이성주 기자

설 앞두고 가정간편식 제품 인기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가정간편식 제품들이 인기다.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산적·전·부침류와 함께 끓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탕류의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다.

3일 GS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 설 가정간편식 상품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1%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만두·딤섬 65%, 즉석밥 69%, 즉석탕 12%, 고등어·꽁치캔 39%, 깻잎·장조림캔 53%, 튀김·부침개·전 8%로 판매량이 증가했다.

옥션에서는 같은 기간 설 가정간편식 상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73% 상승했다.

동그랑땡·부침개 101%, 떡갈비 128%, 만두·딤섬 37%, LA갈비·찜갈비 77%, 국·찌개 131%, 가공육류 162%, 즉석밥 94%로 판매량이 증가했다.

특히 해물경단의 판매량은 657%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11번가에서는 지난달 15~28일 설 가정간편식 상품 매출이 73% 증가했다. 즉석떡국이 55%, 냉동전은 89%, 즉석밥은 75% 매출이 상승했다.

/이성주 기자

전북은행 '설맞이 환전이벤트'

전북은행은 2일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JB 설맞이 환전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해 이 기간 동안 전북은행 홈페이지에서 관련 쿠폰을 다운받아 영업점에 제시하면 1일 미화 100불에서 3,000불까지 최대 80%까지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에 이벤트 쿠폰을 가지고 환전하신 고객이 3월31일까지 외국통화를 구입하면 추후에 추가 환율 우대 쿠폰을 문자로 발송해준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증가하는 외국통화 구입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 운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5~10일까지 6일간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익산국토청은 우선 전남북 일반국도 3,566km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포트홀 응급복구 및 결빙구간 제거를 실시했고, 관내 도로표지판도 점검했다.

특히 고갯길 등 교통소통 취약구간 30개소에 대해서는 폭설 등에 대비해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현장에 준비했다.

설 연휴 기간 중 정읍-원덕(2공구) 일부 구간을 조기 개통하고, 최근 개통한 도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국도1호선 정읍-원덕(2공구) 도로건설공사 10.8km 중 정읍시 입암면 심면리 입암교차로에서 정읍시 신월동 신월교차로까지 4.8km 구간을 5일 조기 개통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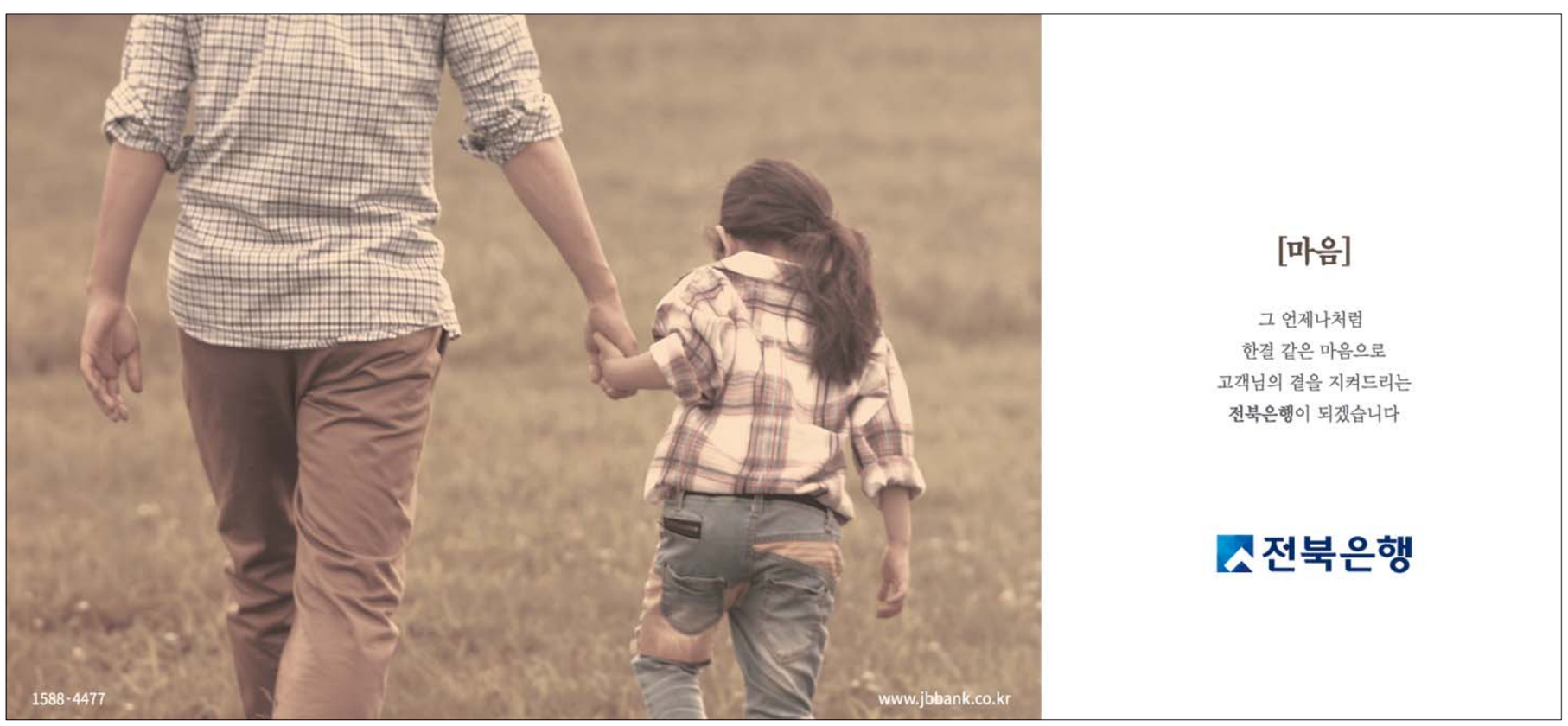
이번 개통으로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와 국도1호선이 직접 연결돼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과 내장산국립공원 접근성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개통한 신태인-김제 일부구간과 여수 돌산-화태 구간을 이용하면 인근지역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국도29호선 신태인-김제 도로확장공사 전체 7.96km 중 정북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에서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까지 6.7km 구간이 지난 12월 31일 개통됐기 때문이다.

김제에서 부안, 정읍방면으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연휴기간동안 도로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도로불편이 용신고 전화(080-0482-000)로 연락하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국토청 도로교통정보센터(063-837-1184)는 스마트폰 무료 앱 '통합교통정보'를 통해 설 연휴 기간 국도 및 인근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